

중국어 부사 ‘在’, 동태조사 ‘着’ 相 자질 중한 대조 분석*

한 경 숙**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인 부사 ‘在’와 동태조사¹⁾ ‘着’의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의미소 중한 대조 분석 및 ‘在’와 ‘着’의 상 자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在’와 ‘着’ 사이의 시간 표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 규명하였고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 통사구조 상의 같음과 다름도 규명하였으며 이런 결과가 앞으로 한국인의 중국어 CSL 교육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在’와 ‘着’는 각각 술어의 앞과 뒤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통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在’가 그 뒤에 위치한 술어와 술어에 따르는 조사, 술어 뒤의 보어, 목적어까지 통솔하여 이들과 統御 관계에 있는 반면 ‘着’는 그 앞에 위치하고 있는 술어 동사만을 수식하고 있다. 이런 통사적 차이 외에도 ‘在’와 ‘着’는 아래와 같은 상적 특징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在’가 ‘비동태성’ ‘지속상’을 갖고 있는 심리동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着’는 불가능하고 ‘着’가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정태의 지속’ 의미를 갖고 있지만, ‘在’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着’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동태의 지속’ 자질을 갖고 있지만, ‘在’는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 자질을 갖고 있다. 중국어 ‘在’가 여러 통사구조에서 나타내는 상 자질은 모두 한국어의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 ‘-고 있-’에 대응되지만, ‘着’는 각각 한국어의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 ‘-고 있-’과 완료상인 ‘-어 있-’과 대응이 된다.

중국어의 상은 주로 동사의 자질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사 외의 다른 통사 범주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구문 주어의 어휘 및 형태적 특징 그리고 술어 동사의 중첩 사용 가능 여부등도 구문의 상 자질에 영향을 준다. 술어 앞의 부사나 기타 부사어, 술어 뒤에 위치한 보어에 의해 상 자질이 구현되기도 한다.

[주제어] 상 자질, 변별적 자질, 부사 ‘在’, 동태조사 ‘着’, 대조 분석, 비교 분석, 지속상, 진행상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동태조사 ‘着’의 상 자질 분석 |
| II.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 V. 맺음말 |
| III. 부사 ‘在’의 상 자질 분석 | |

* 이 연구는 2015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of Dankook University in 2015.)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조교수 / 12120029@dankook.ac.kr

1) ‘동태조사’라는 용어는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 자질의 용어인 ‘動態助詞’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I. 머리말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인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의미소 중한 대조 분석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在’와 ‘着’ 사이의 시간 표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 규명하고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 통사구조 상의 같음과 다름도 규명하여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변별적 자질을 찾아내 한국인의 CSL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상은 주로 술어 동사의 자질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런 술어 동사의 상은 그 뒤에 위치하는 동태 조사에 의해 구현되거나 술어 앞의 부사 등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동사의 자질에 의해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 자질이 구문에 구현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상은 주어나 여기조사, 보어 등 통사적 범주의 어휘적·형태적 특징 즉 語相²⁾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언어는 두뇌세계를 구현해내는 도구이다. 이 두뇌세계는 현실세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두뇌세계이든 현실세계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어우러진 시공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세계의 ‘世’, 즉 시간은 술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의 ‘界’, 즉 공간은 주어 및 목적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³⁾

본고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간적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在’, ‘着’는 문장에서 술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 어떤 상(Aspect) 자질 혹은 시제(Tense) 자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언어구조로 형식화 될 때 다시 시제, 상, 양상(Modality)으로 표현된다. 시제와 상은 모두 시간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상은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고 공간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 변화의 완료냐 미완료냐 즉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동작이 쪼개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시간적인 완료가 반드시 공간적인 완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고 시제가 시간선 상의 외적 구성인 시간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상은 내적 구성인 동사의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장호득(2013a: 170)은 이런 시간과 관련이 있는 성분을 범주화시켜 술어 앞의 성분은 ‘集合’ 범주로 술어 뒤의 성분은 ‘元素’ 범주로 범주화 시켰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하는 ‘在’는 집합 범주, ‘着’는 원소 범주에 속한다. ‘在’, ‘着’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들이 시간과 관련되는 시제, 상, 양상등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한국어와는 어떤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 의미와 관련 통사구조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결과가 한국인의 중국어 교육(CSL 교육)에 반영된다면 보다 좋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장호득, 「현대중국어 상 표지 着 의미소 관련 한중 대조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c), 229쪽. “語相(Aktionsart)은 독일어로 ‘동작의 樣態’를 뜻하는 말로, 낱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적 문법범주를 가리킨다.”

3)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b), 495쪽.

II.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중국어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在’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는 부사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고 부사 ‘在’의 문법의미에 대해서는 상 표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제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동작의 지속, 동작의 진행, 상태의 지속 등 특징과 구분에 대한 일치된 견해도 아직 없다. ‘着’의 문법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着’를 상 표지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동작의 지속과 진행, 상태의 지속 등에 대한 특징과 구분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리고 ‘着’와 결합할 수 있는 술어의 종류와 ‘着’와 ‘正’, ‘在’, ‘正在’, ‘呢’와의 분포 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통일된 견해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중국어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에 대한 비교 연구 논문도 있긴 하지만 의미의 차이에 대한 분석뿐이고 변별적 상 자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중국어 부사 ‘在’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은 없고 ‘着’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은 한국의 최봉량(2008), 장호득(2013c) 등이 있다. 최봉량(2008)은 중국어 동태조사 ‘着’를 한국어의 ‘-고 있-/어 있.’으로 대응시켜 관련 구조 한중 대조 분석을 하였는데 그의 분석 초점은 ‘着’의 한국어 표현인 중한 번역에 있었다. 장호득(2013c)은 ‘着’에 대해 중한 대조 분석하였고, ‘着’를 ‘시간의 공간화’ 상태의 내부 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着’가 ‘지속상’만 있고 ‘진행상’은 없다고 하였고 형용사가 술어로 쓰이는 경우를 ‘정태의 지속’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먼저 중국어의 상 체계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따라 정리해보고 그 체계에 의해 중국어 부사 ‘在’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과 ‘지속상’ 모두 갖고 있고, 동태조사 ‘着’는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동태의 지속’과 완료상의 하위범주인 ‘정태의 지속’ 등 상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면밀한 예문 분석을 통하여 ‘在’와 ‘着’ 상 자질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在’와 ‘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고의 논지를 논증해 나갈 것이다.

“현대중국어는 상에 대한 문법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시제 범주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시제와 상의 하위체계를 갖는 시제, 상 체계를 세우거나 하여 정설화가 된 이론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주 설정에 관한 불일치는 범주가 갖는 기능보다는 형태들이 갖는 의미의 규명에만 몰두한 결과일 것이다. 시제와 상은 모두 시간과 관계를 갖고 있지만 상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의 변화는 시간적으로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시제를 나타내고 공간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혹은 상태 변화의 완료냐 미완료냐 즉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동작이 쪼개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적인 완료가 반드시 공간적인 완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시제가 시간선 상의 외적 구성인 시간의 위치를 나타낸다면 상은 동사의 이동과정으로 장면의 내적 구성인 동사의 동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준다.”⁴⁾

4) 한경숙, 「현대중국어 조사 ‘了’, ‘過’ 관련 구조 의미소 중한 대조 분석 - ‘已經’, ‘曾經’과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언문학회 연구』 47, 한중언문학회, 2015, 437~438쪽.

본고는 박덕유(2007)의 분류를 참조하여 상을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겠다. ‘완료상’은 또한 그 하위범주로 ‘과거진행상(Past Conduct Aspect)’, ‘과거지속상(Past continuous Aspect)’ 그리고 ‘과거경험상(Past experience Aspect)’과 ‘成事相(Past continuous Aspect)’⁵⁾을 설정하고 미완료상은 그 하위범주로 진행상(Conduct Aspect),⁶⁾ 지속상(continuous Aspect),⁷⁾ 반복상(Repeat Aspect)을 설정하겠다. 동사의 상 자질로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을 설정하여 동사를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⁸⁾로 나눈다. ‘在’와 ‘着’의 상적 특징을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에 말뭉치 속의 예문을 선택할 때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심리동사, 행위동사, 변화동사, 완성동사, 이행동사)가 들어있는 예문을 선택해, 이런 동사 앞에 위치한 ‘在’와 동사의 뒤에 위치한 ‘着’가 어떤 상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순간성] 자질의 동사는 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순간성] 자질을 갖고 있지만, 만약 [+반복성] 자질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역시 진행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반복성]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 [+순간성] 자질도 갖고 있는 동사도 함께 고찰해볼 것이다. 북경대학교 CCL말뭉치 속의 예문을 추출하여 대조 및 비교 분석을 하겠다.

Ⅲ. 부사 ‘在’의 상 자질 분석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통사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그리고 장벽이론(Barriers)⁹⁾에 근거하여 “拉格在喘着气。”라는 구문의 심층구조를 분석하여 수형도를 그려보겠다.

위의 수형도에서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가장 큰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在’와 ‘着’는 비록 모두 술어 동작의 상 자질을 구현할 수 있지만, ‘在’는 술어와 술어 뒤의 범주를 모두 통솔하고 있고 술어와 술어 뒤의 조사, 보어, 목적어까지 포괄하는 전체 술어 구조와 통어¹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着’는 오직 술어 동사만을 수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在’와 ‘着’가 술어의 앞과 술어의 뒤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적 차

5)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 소, 2013(b), 499쪽. “필자는 「논어」의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것을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성사시키다’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일을 성시킨 후에도 다른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成事相’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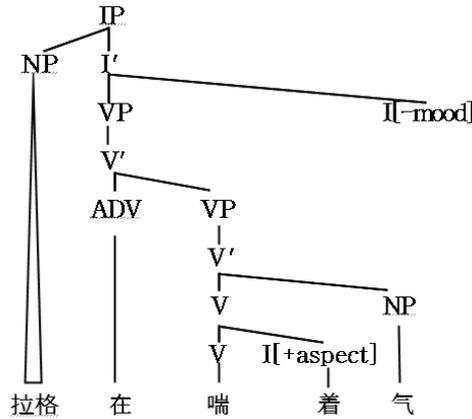
6) 인터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명사」 「언어」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동사 동작상. 현재 진행상, 과거 진행상, 미래 진행상이 있다.”

7) 인터넷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명사」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

8) 본고의 동사 분류는 박덕유(2013)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13, 29쪽.

9) Chomsky(1986)의 Barriers에 나타난 이론으로 ‘장벽이론’으로 불리는데 ‘지배결속이론’의 변화 발전된 이론이다. 이 장벽이론은 ‘X’-통사론’을 비어휘적 범주까지 확대하였으며 ‘X’-통사론’에 맞는 새로운 장벽개념을 도입하고 이 장벽개념을 통해서 지배개면과 하위인접조건을 통합하고 있다.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통어03(統御)[통 : -] 「명사」 거느려서 제어함.”



이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사적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위치 차이와 통사적 역할의 차이 외에 기타 변별적 자질인 상 자질의 차이를 대조 분석 및 비교 분석의 방법으로 고찰해 보겠다.

현대중국어의 시간부사 '在'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여 문장 중에서 부사어 역할을 한다. 부사 '在'의 뒤에 출현할 수 있는 술어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특징을 지닌 동작 동사이다. 이런 동작 동사는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그 분해된 장면이 '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순간성 자질을 갖고 있는 순간동사, 그리고 심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이다. 부사 '在' 구문은 '在+V'과 같은 통사구조를 가질 수 있다.

1. 진행상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상이 바로 진행상이기에 아래의 예문¹¹⁾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사 '在'¹²⁾의 상 자질인 '진행상'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 (1) 我比胡适、鲁迅、梁启超写得都多，现在还在写。
(나는 호적, 노신, 양계초보다 훨씬 많이 썼고,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중이다.)
- (2) 无数的科学家都在研究为什么世界经济衰退得如此迅速和剧烈。(수많은 과학자들이 모두 세계경제가 왜 이렇게 빠르고 심하게 쇠퇴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11) 본고의 예문들은 모두 중국 북경대학교 CCL語料庫에서 발췌했고 한국어 번역은 본고 저자가 한 것이다.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12) 본고에서는 진행상을 갖고 있는 부사 '在'를 '在₁'로, 지속상을 갖고 있는 '在'를 '在₂'로 하겠다.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는 동사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다. 이런 동사는 균질¹³⁾성 즉 ‘離散性’¹⁴⁾을 갖고 있다. (1)의 동사 ‘写’는 그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사 ‘写’는 상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동작 진행의 장면이 분해되고 있는지에 따라 상 자질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데 ‘写’라는 동작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写’ 앞에 위치한 부사 ‘在’는 이때 뒤에 위치한 술어 ‘写’에 지속성보다 동적인 진행성을 부여해주고 있기에 ‘진행상’이 구현되고 있다. 이때의 ‘在’는 한국어의 ‘-고 있-’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고 있는 중-’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고 있-’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¹⁵⁾ 한국어의 ‘-고 있-’은 ‘진행상’¹⁶⁾을 나타낸다. (2)의 동사 ‘研究’ 역시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이다. 부사 ‘在’는 이때 그 뒤에 위치한 술어 ‘研究’에 지속성보다 동작의 진행성을 부여해주고 있기에 ‘진행상’이 구현되고 있다. 이때의 ‘在’는 한국어의 ‘-고 있-’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고 있-’은 한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낸다.

- (3) 他们走近一看, 原来是一群女孩子在踢毽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여학생들이 제기를 차고 있었다.)
(4) 讨厌!谁在咳嗽! (짜증 난다. 누가 기침을 하고 있어?)
(5) 无数的人在出生, 无数的人在死去。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3), (4) 중의 ‘踢’와 ‘咳嗽’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런 동사들이 비록 [+순간성] 자질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반복적인 진행이 가능한 [+반복성] 자질도 갖고 있기에 반복되는 동작의 전 과정은 하나의 동작 내부가 쪼개어진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런 반복 가능한 순간동사의 앞에 역시 부사 ‘在’가 출현하여 동사의 ‘진행상’을 구현해주고 있다. 이때의 ‘在’는 한국어의 ‘-고 있-’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고 있-’은 한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낸다.

(5)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 문장의 술어 ‘出生’과 ‘死’는 [+순간성] 자질을 갖고 있고 동작 반복이 불가능하여 [-반복성] 자질을 갖고 있는 순간 동사이다. 즉 ‘離散性’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이 불가능한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균질, 「명사」 1」 성분이나 특성이 고루 같음. ≒ 동질(等質). 2) 하나의 물질에서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성분이나 특성이 일정함.”
14)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b), 228쪽. “離散性이란 동작이나 행위를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쪼갤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15)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25.
16)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서울: 태학사, 2009, 309~311쪽 참조. “우리말의 ‘-고 있-’은 흔히 진행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정이 단순치는 않다. 왜냐하면 ‘-고 있-’과 ‘-어 있-’은 가끔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문의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에 따라 그 어휘·형태적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어휘·형태적 제약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국문학계가 흔히 보는 관점 즉 ‘-고 있-’은 진행상을 표시한다는 관점을 따를 것이다.”

순간 동사의 앞에 위치한 부사 ‘在’는 어떤 상 자질을 갖고 있으며 이런 상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예문들을 통해 우리는 구문의 주어 어휘의 자질도 동사의 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어의 어휘·형태적 제약이 동사의 상에 가져다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出生’과 ‘死’는 비록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는 순간 동사로 그 동작의 반복이 불가능하여 ‘진행상’과 ‘지속상’을 가질 수 없다. 즉 사람은 오직 한 번 살고 한 번 죽지만, (5)의 주어를 살펴보면 ‘无数的人’은 단수가 아닌 복수를 나타내고 있기에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出生’과 ‘死’라는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의 ‘出生’과 ‘死’의 전 과정은 하나의 동작 내부가 쪼개어지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在’ 역시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고 한국어의 ‘-고 있-’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고 있-’은 한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낸다. (5)의 술어 ‘死’의 뒤에 출현하는 ‘去’를 분석해 보겠다. ‘去’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여 술어의 방향을 나타내준다. 이런 방향보어 역시 [+순간성]을 가진 동사에 ‘상’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즉 비록 ‘死’는 순간적인 일이지만 방향보어 ‘去’의 출현으로 순간동사에 하나의 과정이 첨가되어 죽어가는 과정을 연상케 하는데 이런 과정은 분해가 가능하다. 이런 동작의 분해와 더불어 구문의 주어 어휘가 [-단수] 즉 복수를 나타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구문에는 ‘진행상’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5)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어의 상은 술어 동사의 자질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구문의 기타 통사적 범주의 어휘 자질에 의해서도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술어 동사의 자질을 통해 상 자질을 가질 수 없는 구문도 주어나 보어와 같은 기타 통사적 범주에 의해 상 자질을 구현할 수 있다.

2. 지속상

아래의 예문들을 통하여 부사 ‘在₂’가 지속상을 가진 상황을 분석해 보겠다.

- (6) 他低下头让她误以为他**在伤心**。事实上，他之所以低下头是忍不住想笑出来。(그가 머리를 수그린 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가 머리를 수그린 이유는 쏟아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한 것이다.)
- (7) 据说还有一些人仍**在犹豫**。(듣자하니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5), (6)의 동사 ‘傷心’과 ‘猶豫’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는 심리동사로 그 앞에 부사 ‘在’가 출현하고 있다. 이때의 부사 ‘在’는 어떤 상 자질을 갖고 있을까? 심리동사 ‘傷心’과 ‘猶豫’가 [-동태성] 자질을 갖고 있고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동작이다. 의학적으로 만약 뇌파를 검사해 본다면 ‘傷心(속상하다)’과 ‘猶豫(망설이다)’의 뇌파는 분명 똑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해봐도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은 뇌를 통해 행해지는 서로 다른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 뇌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이기에 심리동사는 동작의 진행 의미보다

이런 심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着’의 상 자질인 ‘동태의 지속’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태성] 자질의 심리동사가 ‘동태의 지속’이라는 상 자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傷心’과 ‘猶豫’ 등과 같은 심리동사의 주체가 처해 있는 상태는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과정도 있기에 균질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어느 시간만큼 오래 지속되고 있기에 이때의 ‘在’는 동작의 진행이 아닌 ‘傷心’과 ‘猶豫’ 등과 같은 속상하거나 머뭇거리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在’는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동태의 지속’상을 갖고 있고 한국어의 ‘-고 있-’으로 번역이 되는데 ‘-고 있-’¹⁷⁾은 한국어에서 ‘진행상’을 나타낸다. 위의 고찰을 다음과 같은 <표 1>로 정리한다.

<표 1>

관련구조	예문	술어 동사 자질	주어 어휘 자질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 표지
在+V	我比胡适、鲁迅、梁启超写得都多，现在还在写。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讨厌!谁在咳嗽!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据说还有一些人仍在犹豫。	[+離散性] [-動態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동태의 지속)	在 ₂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无数的人在出生，无数的人在死去。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複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IV. 동태조사 ‘着’의 상 자질 분석

앞 장의 고찰을 통해 중국어의 부사 ‘在’가 동사 동작의 진행과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진행상’과 ‘지속상’ 등 두 가지 상 자질을 갖고 있다.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 ‘着’ 구문의 통사적 구조는 ‘V+着’, ‘V₁+着+V₂’로 나눌 수 있다. 이중 ‘V+着’구조에서는 술어 동사 ‘V’의 특성에 따라 동태조사 ‘着’가 두 가지 상 자질인 ‘동태의 지속’과 ‘정태의 지속’을 갖게 된다. 그리고 ‘V+着’구조는 상 자질 외에 또 다른 의미를

17)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서울: 태학사, 2009, 309~311쪽 참조. “우리말의 ‘-고 있-’은 흔히 진행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정이 단순치는 않다. 왜냐하면 ‘-고 있-’과 ‘-어 있-’은 가끔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문의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니면 타동사인지에 따라 그 어휘·형태적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어휘·형태적 제약이 가져다주는 영향은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국문학계가 흔히 보는 관점 즉 ‘-고 있-’은 진행상을 표시한다는 관점을 따를 것이다.”

나타내기도 하는데 본고의 중심이 상 자질 고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고에서는 간단하게 다룰 것이다. ‘V+着’구조 중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은 ‘着₁’로 하고 ‘정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은 ‘着₂’로 하고 기타 着은 ‘着₃’으로 하겠다. ‘V₁+着+V₂’구조는 ‘V+着’구조보다 복잡해져 두 가지 상 자질인 ‘동태의 지속’과 ‘정태의 지속’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자질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着’는 어떤 상 자질들을 갖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1. 동태의 지속

아래에 ‘着’의 문법범주 중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예문을 살펴보고 중한 대조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런 ‘동태의 지속’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로 그 초점은 동작의 ‘지속’에 있다. 이런 동작의 지속은 균질성을 갖고 있는 동사들에 의해 실현된다.

- (8) 他所希望的应该是在天上、或是在来世的时候,都能够好好地睡着午觉,不过至少得要他看着,他所遗留的作品,最后有怎样的一个结果。(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든지 내세에서든지 낮잠을 편하게 잘 자고 있기를 바랄 뿐이지만, 최소한 그가 남겨놓은 작품이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9) 罗盘喘着气,只回答四个字:“有进无退”。(나반은 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가면 갔지 절대 후퇴는 없다.”)
- (10) 我低头写着字,十分用力。(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글을 쓰고 있었다. 매우 힘 있게 쓰고 있었다.)

(8), (9), (10)에서 문장 중의 술어 ‘睡’, ‘喘’, ‘写’는 모두 ‘離散性’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 모두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다. 즉 균질성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런 균질성 자질은 이들 동사로 하여금 동작 과정 내부를 분해할 수 있게 하여 상적 특징을 갖게 하였는데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동태의 지속’이라는 상 자질을 갖게 한다.

위의 구문들을 살펴보면 술어의 앞에는 ‘他’, ‘罗盘’, ‘我’가 각각 주어가 되고, 술어의 뒤에는 ‘午觉’, ‘气’, ‘字’ 등이 목적어로 출현하였다. 즉 이 문장들의 주요 구조는 모두 ‘주어+술어+목적어’구조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 구조 안에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문법표지가 추가로 나타난다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의 기본 구조에서 문장 중에 부사 ‘在’, ‘正在’와 조사 ‘呢’가 추가적으로 출현한다면 그 의미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고찰해 보자.

- (11) 当拉格正在喘着气时,卡拉蒙绝望的和食人魔的一只大手对抗。
(라혹이 마침 숨을 쉬고 있을 때 카라몬은 절망에 빠져 식인마의 큰 손에 대항하고 있었다.)

위의 예문 (11)에서 술어 동사 ‘喘’의 뒤에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이 위치해 있고 동시에 술어의 앞에

는 ‘正在’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출현하였다. ‘正在’가 출현함으로써 술어 동사 뒤의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가 붙어서 ‘喘(숨을 쉬다)’라는 동작의 지속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술어 동사 앞의 ‘正在’는 복합적인 시간부사로 ‘正’은 ‘喘’이라는 동작 진행의 어느 한 시점이나 동작의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을 제시해주고 있기에 동작의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나 ‘在’는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 ‘喘’의 진행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사의 앞에 ‘正在’는 ‘喘’이라는 동작의 시제와 상을 모두 나타내주고 있는 복합적인 시간사로 이런 시간사의 출현은 동태조사 ‘着’만 출현한 구문과는 많은 의미상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正在’는 ‘正(마침)’과 ‘在(진행)’의 결합체로 본 구문에서는 술어 동사 상을 나타내는 것보다 동작이 마침 일어나고 있는 시작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범주에 속한다. 술어 뒤에 위치하여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는 술어 동사가 분해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에 ‘着’로 우리말의 ‘-고 있-’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2. 정태의 지속

아래에 ‘着’의 문법범주 중 ‘정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예문을 살펴보고 중한 대조 분석하기로 하겠다. 이런 ‘정태의 지속’은 완료상의 하위 범주로 그 초점은 동작의 ‘지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완료 후 처해있는 정지된 상태의 지속인 ‘정태의 지속’에 있다. 이런 ‘정태의 지속’은 균질성을 갖고 있는 동사의 형태·어휘적 특성과 구문의 주어에 따라 결정된다.

(12) 牆头上挂着一张画。(벽에는 그림 한 장이 걸려 있다.)

(13) 孔军冲上4楼, 只见吴玉桥家的门开着, 卧室关着。

(공군이 4층으로 돌진해 올라가 보니, 오옥교 집의 문은 열려 있고 침실은 잠겨 있었다.)

(14) 那上面写着字呢!(그 위에 글자가 씌어져 있어.)

(12), (13), (14)에서 ‘挂’, ‘开’, ‘写’ 모두 ‘離散性’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 모두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다. 즉 균질성을 갖고 있는 동사들이다. 이런 균질성 자질은 이들 동사들로 하여금 동작 과정 내부를 분해할 수 있게 하여 상적 특징을 갖게 하였다. (12), (13), (14)를 살펴보면 동작은 끝났고 상태만 지속되고 있기에 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정태의 지속’이라는 상 자질을 갖게 한다.

위의 구문들을 살펴보면 술어의 앞에는 ‘牆头上’, ‘门’, ‘那上面’이 각각 주어가 되고, 술어의 뒤에는 ‘画’, ‘字’ 등이 목적으로 출현하였다. 즉 이 문장들의 주요 구조는 모두 ‘주어+술어+목적어’구조이다. 그러나 이 주어들을 살펴보자면 앞 절의 주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着’가 ‘동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구문 중의 주어가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유정] 자질을 갖고 있는 어휘인 반면, (12), (13), (14)에서 주어는 모두 [-유정]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같은 ‘주어+술어+목적어’구조이지만, 주어의 자질에 따라 동사

는 서로 다른 상 자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정] 자질을 갖고 있는 어휘가 주어에 되었을 때 구문 (12), (13), (14)을 고찰해 보면, 동태조사 ‘着’의 상 자질은 ‘지속’이지만 술어 동사 동작이 완료된 후 그 상태의 지속이므로 본고는 이때의 ‘정태의 지속’을 완료상의 하위 범주로 간주하겠다. 비록 구문의 동사가 같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라 할지라도 구문 중 주어의 어휘자질에 따라 동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상을 가진다. 그만큼 어휘적, 상태적 자질이 동작의 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예를 들어 같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 [+접근성] 등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가 구문의 술어지만, “我低头写着字”와 “那上面写着字呢!” 두 구문에서 앞의 ‘着’는 ‘着₁’ (미완료상)이고, 뒤의 着은 ‘着₂’(완료상)이다. ‘着₂’는 한국어의 ‘-어 있’로 번역할 수 있는데 ‘완료상’이다¹⁸⁾.

위의 분석을 통하여 같은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상 자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동작의 상은 동사의 자질 외에 주어의 어휘 자질, 부사어, 동태조사, 보어 등 여러 가지 통사적 범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타 ‘着’

‘V+着’구조에서는 술어 동사 ‘V’의 특성에 따라 동태조사 ‘着’가 두 가지 상 자질인 ‘동태의 지속’과 ‘정태의 지속’을 갖게 된다. 그리고 ‘V+着’구조는 상 자질 외에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래 예문 분석을 통하여 상 자질 외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着₃’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 (15) 小子你**听着**, 跟我说话放尊重点。(너 잘 들어! 나와 이야기할 때는 공손해야 해.)[명령]
- (16) 我是徒步**走着**来的。(나는 도보로 왔어.)[방식]
- (17) 这几天, 中国人和全世界的华人正**忙着**准备过年。
(요 며칠 중국인과 전 세계의 중국계 주민들은 모두 설 준비를 위하여 서두르고 있다.)[목적]
- (18) 他**看着看着**站了起来。(그는 보면서 일어났다.)[동시(진행)]
- (19) 伪省长不穿军服, 也**看着**不顺眼。(괴뢰성장이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보기는 불편했다.)[평가]
- (20) 报社领导严肃地思考了良久后说, 你自己**看着**办吧。(신문사 사주는 엄숙하게 한참동안 사색에 빠지더니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라.”라고 말을 했다.)[명령]
- (21) 要用钱的地方**多着**呢。(돈을 써야 할 곳이 매우 많다.)[정도]

(15)~(21) 예문들을 살펴보면 ‘着’는 상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비록 위 구문들의 술어는 마지막 ‘多’만 형용사이고 다른 동사들 ‘听(듣다)’, ‘走(걷다)’, ‘忙(서두르다)’, ‘看(보다)’ 등은 모두 균질성을 가졌지만, 이 구문들에서는 ‘着’는 상 자질을 갖고 있지 않고 ‘명령’, ‘방식’, ‘목적’, ‘동시’, ‘평가’, ‘명령’ 등 화용적 의미를 갖고 있다.

18)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서울: 태학사, 2009, 309쪽.

특히 마지막 구문 (21)에서 술어는 형용사로 형용사 ‘多’의 뒤에 ‘着’가 위치하고 그 뒤에 다시 어기조사 ‘呢’가 뒤따르고 있는 ‘형용사+着+呢’구조이다. 이런 구조를 장호득(2013(c): 231)은 ‘정태의 지속’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의 관점은 다르다. 본고는 ‘형용사+着+呢’구조에서 ‘着+呢’는 그 앞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咳，我们那工作累着呢！”，“就是牛街呀挺破，烂着呢！”，“咳，就那大黑沫子臭着呢！”，“这事复杂着呢！” 등 말뭉치의 예문 중의 형용사 ‘累’, ‘烂’, ‘臭’, ‘复杂’의 뒤에 구조 ‘着呢’가 출현하여 ‘累着呢’, ‘烂着呢’, ‘臭着呢’, ‘复杂着呢’를 형성하였는데, 이런 구조들도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의 정도가 더 강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형용사가 보여주는 상태가 지속 되고 있는 의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위의 분석을 다음과 같은 <표 2>로 정리한다.

<표 2>

관련구조	예문	술어 동사 자질	주어 어휘 자질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 표지
V+着	我低头写着字， 十分用力。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동태의 지속)	着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牆头上挂着一张画。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완료상 (정태의 지속)	着 ₂	완료상	-어 있-
기타 V(A)+着 ₃	V+着 ₃	‘명령’, ‘방식’, ‘목적’, ‘동시(진행)’, ‘평가’ 등 의미를 갖는다.					
	A(Adjective)+着 ₃	술어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낸다.					

V. 맺음말

본고는 중국어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 관련 언어구조를 분석하였고 ‘在’와 동태조사 ‘着’의 의미소 중한 대조 분석을 통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상적 특징을 대조, 분석하였다. ‘在’와 ‘着’가 각각 술어의 앞과 뒤에 위치하여 서로 다른 통사적 역할을 하고 있고 ‘在’가 그 뒤에 위치한 술어를 포함한 조사, 보어, 목적어와 통어 관계에 있는 반면, ‘着’는 바로 앞에 위치한 술어 동사(형용사)만 수식하고 있다. ‘在’와 ‘着’의 상 자질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은 <표 3>으로 정리한다.

첫째, 중국어 부사 ‘在’는 미완료상의 하위범주인 ‘진행상’과 ‘지속상’을 갖고 있고 동태조사 ‘着’는 완료상과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 등 상 자질을 갖고 있다.

둘째, ‘在+V’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진행상’은 한국어의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으로 구현되고

〈표 3〉

관련구조	예문	술어 동사 자질	주어 어휘 자질	중국어 의미 범주	중국어 표지	한국어 의미 범주	한국어 대응 표지
在+V	我比胡适、鲁迅、梁启超写得都多，现在还在写。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讨厌!谁在咳嗽!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据说还有一些人仍在犹豫。	[+離散性] [-動態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동태의 지속)	在 ₂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无数的人在出生，无数的人在死去。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複數]	미완료상 (진행상)	在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V+着	我低头写着字，十分用力。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有情] [±單數]	미완료상 (동태의 지속)	着 ₁	미완료상 (진행상)	-고 있-
	墙上挂着一张画。	[+離散性] [-瞬間性] [+重復성]	[-有情] [±單數]	완료상 (정태의 지속)	着 ₂	완료상	-어 있-
기타 V(A)+着₃	V+着 ₃	‘명령’, ‘방식’, ‘목적’, ‘동시(진행)’, ‘평가’ 등 의미를 갖는다.					
	A(Adjective)+着 ₃	술어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 표지는 ‘-고 있-’으로 대응된다. ‘在+V’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진행상’이 구현될 때 동사는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등 세 가지 자질을 갖고 있고; 주어 어휘는 [+有情], [±單數], [+有情], [+複數] 등 자질을 갖고 있다.

셋째, ‘在+V’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지속상’도 한국어의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인 ‘진행상’으로 구현되고 그 표지는 ‘-고 있-’으로 대응된다. ‘在+V’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지속상’이 구현될 때 동사는 [+離散性], [-動態性], [+重復性] 자질을 갖고 있고; 주어 어휘는 [+有情], [±單數] 자질을 갖고 있다.

넷째, ‘V+着’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동태의 지속’은 미완료상의 하위 범주이고 한국어의 ‘완료상’과 대응되고 그 표지는 ‘-어 있-’으로 대응된다. 중국어의 ‘동태의 지속’이 구현될 때 동사는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자질을 갖고 있고 주어 어휘는 [+有情], [±單數] 자질을 갖고 있다.

다섯째, ‘V+着’ 통사구조에서 중국어의 ‘정태의 지속’은 완료상의 하위 범주이고 한국어의 ‘진행상’과 대응되며 그 표지는 ‘-고 있-’으로 대응된다. 중국어의 ‘정태의 지속’이 구현될 때 동사는 [+離散性], [-瞬間性], [+重復性] 자질을 갖고 있고 주어 어휘는 [+有情], [±單數] 자질을 갖고 있다. 즉 [+離散性], [-瞬間性], [+

重復性) 자질을 갖고 있는 동사의 상 자질은 주어 어휘의 자질인 유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섯째, ‘着’ 앞의 술어가 형용사일 때 ‘형용사+着+呢’구조 중 ‘着’는 앞 술어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지 ‘지속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상 표지인 부사 ‘在’와 동태조사 ‘着’의 통사구조에 대한 분석과 의미소 중한 대조, 비교 분석을 통하여 ‘在’와 ‘着’ 사이의 시간 표현의 같음과 다름에 대해 규명하였고 동시에 중국어와 한국어 통사구조 상의 같음과 다름도 규명하였으며 이런 결과가 나아가 한국인의 중국어 교육 즉 CSL 교육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서울: 태학사, 2009.
-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 2013.
- 장호득, 「현대중국어 시간 개념의 범주화와 통사적 도출 연구」, 『중국문학연구』 50, 한국중문학회, 2013(a).
- 장호득, 「현대중국어 相 표지 了의 成事相 의미소 및 관련 구조 중한 대조 분석」, 『비교문화연구』 3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b).
- 장호득, 「현대중국어 상 표지 着 의미소 관련 한중 대조 분석」,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c).
- 최봉량, 「중국어 동태조사 ‘着’의 한국어 표현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52, 영남중국어문학회, 2008.
- 한경숙, 「현대중국어 조사 ‘了’, ‘過’ 관련 구조 의미소 중한 대조 분석 - ‘已經’, ‘曾經’과의 공기 관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2015.
- Comrie, Bernard,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25.
- Chomsky, Noan(a),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Chomsky, Noan(b), *Barriers*, Cambridge: MIT Press, 198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중국북경대학교 CCL語料庫(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9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in China and South Korea of Chinese Adverbs 'Zai(在)' and Auxiliary Words 'Zhe(着)'

Han, Keungshuk*

This paper makes a contrastive analysis of the syntax structure and semantics of the time mark 'Zai(在)' and 'Zhe(着)' in modern Chinese. By the time sememe analysis,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Zai(在)' and 'Zhe(着)' semantic, but also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grammatic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 hope that the results can give a positive meaning to the Chinese language education.

'Zai(在)' and 'Zhe(着)' are located in the front and behind the predicate, 'Zai(在)' modified behind it, including auxiliary, complement, object, predicate structure. But, 'Zhe(着)' only modify it in front of the verb. In addition, they also have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Zai(在)' can be modified with the 'non dynamic', 'continuous' semantic of the psychological verb, 'Zhe(着)' is not. The 'Zhe(着)' has the meaning of 'static', 'Zai(在)' is not. 'Zhe(着)' is the meaning of 'unfinished sustained phase branch' dynamic, 'Zai(在)' is the unfinished phase branch phase. The semantics of the syntactic structure in the Chinese 'Zai(在)' are unfinished and Korean phase points phase '-고 있-' the corresponds to. 'Zhe(着)' were unfinished and Korean phase points phase '-고 있-' and finished phase '-어 있-' the corresponds to.

Although the time of Chinese language is mainly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verb, it also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time of the Chinese language. The lexical features of the subject of the sentence and the repetition of the predicate verb may have a certain effect on the time of the sentence.

[Key Words] aspect Features, Distinguishing feature, the vice president 'Zai(在)', the investigation 'Zhe(着)', Comparative analysis, Comparison analysis, Continued aspect, Conduct aspect,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